

합격기

(5급공채(행시) 검찰직 합격)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진영

- 송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법대 재학 중
- 5급공채(행시) 검찰직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58회 5급공채 검찰직에 합격한 이진영입니다. 운이 좋게도 이번에 합격하게 되어 지금 수기를 쓰게 되었는데 저보다 실력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글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보고 싶은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소수직 지원자로서 검찰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가볍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II. 수험기간

1. 2011년 3월 ~ 2012년 2월(첫 번째 제1차시험)

대학교 2학년이 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해보고자 교수님의 권유에 따라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토익은 수능이 끝나고 바로 따놓은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필요치 않았습다. 3월에 고시반에 들어가서 2개월 동안 5월에 있을 한국사 시험을 준비한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김기홍 강사님의 행정법 예비순환과 1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강의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용어 익히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가 붙어야 2차를 본다는 심정으로 피셋

기출문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2차 시즌이라 고시반에서는 1차 강의를 지원하지 않았기에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이 있기 2개월 전부터 피셋 스터디를 꾸려 연습했습니다. 이 때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하였고 때문에 초반에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 시험 날짜가 방학을 충분히 활용하면 가능한 정도라 괜찮았지만 올해처럼 2월 초에 본다면 1차도 휴학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3. 2012년 3월 ~ 2013년 2월(두 번째 제1차시험)

첫 번째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고 3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피셋(PSAT)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2학기에 처음 휴학을 했습니다. 이 해에는 행정법뿐만이 아닌 형법, 형소법, 교정학, 법의학(선택과목)을 최소 각 1독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공부했습니다. 이 때에는 각 과목의 기본서를 정독하였고 행정법의 경우에는 2순환 수준으로 올려보자는 생각으로 사례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교정학의 경우 1학기에 경찰행정학과 전공 수업을 수강하면서 개론을 파악하였습니다. 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학교 수업을 활용하면서 다니시면 효율적이실 것

입니다. 저는 전공이 법학인지라 수강 과목을 형사법과 행정법 위주로 들어 올해 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 3학점이 남아서 연수원과 병행할 예정입니다.

4. 2013년 3월 ~ 2013년 7월(첫 번째 제2차시험)

가채점 결과 이번 1차 시험에서는 합격하겠다 싶어 곧바로 2차 시험 계획을 짜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한 상태로 시험을 치루고 방학이 끝난 뒤 9월에 복학하였습니다. 이 때가 3학년 2학기였습니다. 피셋(PSAT)과는 달리 2차의 경우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고시반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2차 시험장이 성균관대였는데 기숙사에서 택시로 15분 정도 걸려 카풀을 해서 오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 기숙사에서 퇴실했습니다.

5. 2013년 7월 ~ 2014년 2월(세 번째 제1차시험)

솔직히 2차 시험이 끝난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책을 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학교를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두고 2개월 전부터 다시 피셋(PSAT) 스터디를 꾸려 연습했습니다. 피셋(PSAT)스터디 활용 방법은 후술하겠습니다.

6. 2014년 3월 ~ 2014년 7월(두 번째 제2차시험)

2차 시험기간이 되어 학교를 휴학하였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기숙사에 다시 들어갔다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 집에서 공부하면서 몸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쯤에 집으로 책을 모두 가져와서 제 방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공부 장소는 각자 맞는 장소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편했는데 가족들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 해에 2차 시험장소는 고려대였는데 집에서 먼 관계로 근처에 고시원을 잡아 시험 기간 1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였습니다.

7. 2014년 7월~ 2014년 11월(제3차 면접)

다시 2차 시험이 끝나고 난 뒤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시기입니다. 이 때 다시 복학을 하여 4학년 1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2차 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면접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II. 공부방법

1. PSAT

(1) 스터디 활용

시험준비를 하기 시작한 첫 해에 연자상 기본서를 모두 사서 봤는데

결국 앞 부분만 보다가 말았습니다. 또한 강의보다는 혼자 풀면서 자기만의 스킬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는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강의 대신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강의에서는 그 강사의 스킬을 알려주는 것인데 90분간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강사의 인위적인 스킬 보다는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스킬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심자의 경우 스터디에 피셋 고수가 적어도 1명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풀면서 자기만의 스킬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셋 고수의 스킬을 참고하면서 이를 활용한 스킬을 만들어내는 것도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스터디 인원은 고수 포함 4~5명이었습니다.

자신이 피셋(PSAT)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다면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실한 사람과 같이 스터디를 하면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피셋(PSAT) 스터디에 정말 성실한 선배랑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제 스킬을 공유하고 선배를 통해 자극을 받은 결과 각자의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때 스터디 인원은 2~3명이었습니다.

(2) 공부 시간

1차에서는 스터디만 활용하였습

니다.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스터디 사람들과 다 같이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언자상을 하나씩 풀고 나면 오후 4시쯤 끝납니다. 물론 오답은 각 영역을 풀고 난 뒤 30분씩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2개 더 풀었습니다. 언자상 중에 풀면 풀수록 점수가 오르는 과목은 자료라고 생각되어 자료를 전략과목으로 세우고 더 연습했습니다. 마지막 피셋(PSAT) 공부를 할 때에는 상황을 올려보자는 생각으로 자료 1개, 상황 1개를 더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5개를 풀면 저녁 9시 30분쯤 됩니다. 초심자의 경우 30분동안 오답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하루에 3-4개를 풀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2개월 동안 매일 5개를 푸는 것은 체력적으로 어렵습니다. 피셋은 컨디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시험이기에 몸 관리도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1주일에는 3개 - 그 다음 2주일에는 4개 - 그 다음 3주일에는 5개 - 그 다음 3주일에는 4개 - 마지막 1주일에는 3개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터디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며 토요일에는 3개로 가볍게 끝냈습니다.

(3) 문제

피셋(PSAT)에서 기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

니다. 저는 첫 해에 기출 분석만 몇 개월을 했기 때문에 답을 다 외워버렸다고 하여 마지막 일주일 동안 모강을 푸는 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감이 떨어져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경솔했죠. 마지막 일주일만 반드시 기출을 푸셔야 합니다.

스터디 중에도 항상 언자상 순서로 풀었는데 이는 시험날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개월 동안 매일매일을 모의 1차 시험이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기출을 자세히 분석하고 난 뒤 시간 절약과 스킬 연습을 위해 모강으로 연습했습니다. 모강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처럼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고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과 자주하는 실수를 짚는 식으로 오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하여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전국 모의고사를 신청하여 중학교에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2. 제2차시험

(1) 형법

소수직이다 보니 학교에서도 답안 작성 스터디를 만들기도 애매하여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형법은 사시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보통 GS 2순환이 행시강의 3순환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2

차 시험기간에 이재상 강사님의 1순환(기본강의)을 듣고 2순환(사례강의)을 들었는데 두 번째 2차 시험에서는 2순환만 수강하여 실전감각을 익혔습니다.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 총론>을 3회 정도 정독하였고 <형법 각론>을 1회 정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재상 강사님의 수험서로 공부를 하였는데 <더 형법>과 <신경향사례집>으로 공부하고 <로스쿨 형법 핵심정리>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시반에서 초청한 교수님들의 2차 강의를 수강하였고 수강을 못할 경우 배부된 자료만이라도 얻어 참고하였습니다. 최신 판례나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쟁점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 형소법

형소법 또한 사시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재상 교수님의 <형사소송법>을 3회 정독하였고 정주형 강사님의 1순환과 2순환을 수강했습니다. 정주형 강사님의 <형사소송법 강의안>으로 공부하고 <최종정리 형사소송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법과 마찬가지로 교수님 특강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3) 교정학

이윤호 교수님의 교정학책으로 개념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7~9급 수

험서인 <메카교정학>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정학의 경우 형집행법의 비중이 상당하지만 시험장에서 법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형집행법의 각 조문의 내용을 암기하여 기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논문과목이기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여 첨가하는 것도 점수를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교정본부 월간행물이 있는데 이를 통해 그 해에 대두되었던 쟁점이나 교정본부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RISS를 통해 교정학 관련 논문을 열람하는 것도 좋습니다. 논문 제목만 보고 쟁점 정도만 파악하는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번에 기출에 나온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문제의 경우 정리한 논문을 활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문을 세세히 정리할 필요는 없고 간략히 읽으시다가 예뻐 보이는 문장이 있으면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행정법

김기홍 강사님과 류준세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좀 더 공부한 뒤 수강해서 그런지 류준세 강사님의 강의가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류준세 강사님의 예비순환을 수강

한 뒤 정하중 교수님의 기본서를 정독하고 류준세 강사님의 3순환을 수강하여 사례연습을 하였습니다. 행정법의 경우에는 고시반 선배님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로 답안지 작성 후 검토를 선배님들께 받아보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5) 법의학(선택과목)

맨 처음엔 노동법을 선택하였는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관계로 노동법은 보지도 못하고 법의학으로 돌렸습니다. 법의학은 무엇보다 분량이 적습니다. 어떤 분은 이를 동안 보고 시험을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대명 교수님의 법의학 책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사진들이 좀 징그러운 것을 빼면 내용도 재미있고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점수도 높게 주는 편이어서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답안 작성의 경우 서론(사건의 개요 간략히) -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약술 - 사건의 재구성(사안 포섭)을 기본 포맷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것이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두부손상 쪽을 정리해봤는데 결국에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법의학의 경우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이 다른 과목들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의학적인 부분은 생략해도 되지만 나만의 스킬

로 각 영역당 전문 용어 한두 가지는 갖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제3차 면접

소수직의 경우 3명 중에 2명을 뽑기 때문에 2차 시험에 합격해도 즐거움보다는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결과가 발표된 후 곧바로 행시사랑 카페를 통해 소수직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 발표 후 3시간도 못되어 마감된 기억이 납니다. 소수직은 면접 또한 소수직끼리 보기 때문에 같이 스터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번 면접장에서 같이 들어간 5명 중에 3명이 같은 스터디원들이었습니다. 덕분에 낯설지 않게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사회복지직렬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스터디는 검찰직, 사회복지직, 보호직, 교정직, 일행지역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면접 준비시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때에는 학교 수업에 거의 못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전 서브 스터디 1개, 오후 메인 스터디 1개, 저녁 서브 스터디 1개를 해서 하루 종일 면접에 매달리다 보니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학기의 성적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III. 수험 생활

1. 학교 재학 중

저는 마지막에 집에서 공부한 것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데에는 고시반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또한 비용도 교통비와 식비만 들어서 한 달에 평균 15만원 정도 썼습니다. 수험서는 한 번 사면 2년 정도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만 들고 학교에서 강의 지원시 필요한 경우 강의 2개 정도만 사비로 해결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각 학교 고시반의 지원 내용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지만 신입동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시반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학교 선배님들이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얻는 데에 비교적 쉬웠습니다.

학교 재학 중에는 최대한 전공 과목이 2차 과목과 비슷하게 되도록 신청하였고 첫 해에는 피셋(PSAT)을 보기 전에 논증적사고수업을 수강하여 언어논리의 경우 논리 파트에 있어 어려움이 덜했습니다.

2. 기숙사 생활

첫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한 4개월 동안에는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다

음은 3순환을 들었을 때의 스케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6시 10분에 일어나서 밥을 꼭 먹고 준비하고 7시에 고시반에 도착합니다. 아침엔 굉장히 졸리기 때문에 7시 10분부터 답안 작성을 1시간 동안 하고 인강을 1회(하루치가 3회) 들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머지 2회를 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복습을 1시간 정도 하면 오후 2~3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강의의 답안지를 1시간 동안 작성하고 인강 1회를 듣고 저녁을 먹은 후 나머지 강의를 들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복습을 하고 부족한 공부를 밤 12시까지 하고 기숙사로 내려갑니다. 12시 40분에 취침합니다.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스케줄이며 토요일에는 강의 1개 스케줄 즉, 오후 3시에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3순환 강의를 이렇게 최대한 빨리 마친 후 똑같은 시간으로 개인 공부를 하였고 답안지도 똑같이 하루에 연속하여 2시간씩 썼습니다.

3. 집에서 공부할 때의 생활

집에서 공부가 안 되신다면 이 방법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시반에서 있을 때와 달리 아침 출석 시간이 없기에 시간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

점이었습니다. 아침잠이 많아 오후 12시쯤 일어나서 새벽 5-6시까지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새벽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집중이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이라서 소리내면서 책을 읽기도 하고 자세가 불편하면 침대에 엎드려서 해보기도 해서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게도 잘 먹어서 컨디션이 좋았고 살이 찼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숙사 생활처럼 정말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 공부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IV. 마치면서

공부를 2명 뽑는 소수직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직을 지원하는 분들이 대개 그렇듯이 그 2명도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내가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한눈 팔지 않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이런 행운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1차를 떨어지고 나도 다수직렬로 바뀌볼까 하고 아주 잠시 한눈을 팔 뻔한 적이 있었지만 고시합격을 목표로

로 잡지 말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선배님의 말씀이 있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수직의 경우 이를 상기시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해보려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졸업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에는 혼자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는 신림동에 들어가거나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 먼저 공부하신 선배님 또는 친구들을 보고 그 분들이 옆에서 붙여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됩니다. 저 또한 1차에서 떨어진 첫 해에 피셋을 도와준 선배가 최종합격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아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5급공채 1차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시험을 응시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부족한 수기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수험생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